전북, 권경원 영입 공식 발표…효과는?

돌려막기 고민 해결 센터백 숨통 트인다

전북 현대가 3일 권경원의 임대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권경원의 합류는 부상자가 많은 전북 수비라인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2013년 전북 소속으로 K리그 경기를 뛰고 있는 권경원.
스포츠동아DB

수비진 줄부상으로 고전한 전북 톈진서 권경원 6개월 임대 영입 서울·울산과 선두경쟁 '새 동력'

국가대표 중앙 수비수 권경원(27)이 4년 6개월 만에 친정에 복귀했다.

K리그1 전북 현대는 3일 "중국 슈퍼리그 톈진 톈하이에서 활약한 권경원을 6개월 임대로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스포츠동아 6월 21일자 8면 단독보도).

이미 예고된 수순이다. 양 측은 올해 초부터 입장을 좁혀왔고, 지난달 중순 모든 합의를 끝냈다. 물론 선수 본인도 K리그 유턴이 꼭 필요했다. 내년 상주 상무(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해 군 복무를 시작하려면 입대 전 최소 6개월은 K리그 그라운드를 누벼야 한다. 울산 현대를 비롯한 여러 팀들이 관심을 보였으나 권경원의 선택은 자신에게 프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게 한 전북이었다.

전북은 시즌 내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주력들이 전열을 이탈하면서 고전했다. 조세 모라이스 감독(포르투갈)은 수비라인 운영에 골머리를 앓았다. 중앙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보경이 4월 초 허벅지 뒷근육을 다친 뒤 전북은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홍정호와 올해 새롭게 합류한 김민혁으로 근근히 버텨야 했다. 둘 중 누군가라도 경고누적 등 징계나 부상으로 빠지면 측면 풀백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돌려막기'로 힘겹게 싸웠다.

권경원의 합류로 전북 벤치는 전력 운용에 숨통이 트였다. 조만간 최보경까지 합류하면 홍정호와 김민혁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중앙수비 4명은 로테이션에 필요한 가장 이상적인 숫자다. 적절한 체력 안배로 뒷문을 안정시키면 전방의 수비부담을 줄일 수 있다. FA컵과 ACL을 모두 날린 전북에게 올해 남은 우승 기회는 정규리그가 유일하다. '역대급 경쟁'으로 포장될 만큼 2위 FC서울, 3위 울산 현대의 추격이 대단해 영리한 팀 운영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 2년간 전북에 몸담은 권경원은 2015년 초 알 아흘리(아랍에미리트)로 향했고 2017년 이적료 1100만 달러(당시 약 132억 원)에 톈진으로 옮겼다. 이는 손흥민(27)이 2015년 바이엘 레버쿠젠(독일)에서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로 옮길 때 찍힌 이적료 2200만 파운드(당시 약 401억 원)에 이어 한국선수 두 번째로 높은 액수였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독일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에 합류해 훈련 중인 정우영(맨 오른쪽)과 권창훈(오른쪽에서 2번째). 차기 시즌 독일에서 뛸 태극전사들이 늘어나면서 분데스리가가 한국 축구팬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출처 | 프라이부르크 SNS

한국선수들이 독일로 가는 이유는?

최현길의 스포츠에세이

외국인 쿼터 제한 없어 접근성 높아 한국선수 실력 등 현지서 높은 평가

"입장권 사기가 보통 어렵지 않았다. 푸른 잔디 위에서 펼쳐지는 2시간 동안의 게임은 글자 그대로 축구의 향연이었다. 이 예술 같은 축구를 보고 어느 누가 미치지 않을 수 있을까."

요즘 얘기가 아니다. 40여 년 전 한국 축구인의 눈에 비친 독일(당시 서독) 분데스리가의 모습이다. 1977년 9월부터 3개월간 독일에 머문 장원직 우신고 코치는 월간축구(1978년 3월호)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많은 지도자를 외국에 유학시키는 것과 병행해 장래성 있는 선수들을 많이 유학시켜 실제로 세계적 수준의 축구는 이런 것이라는 걸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언처럼 들린다. 그만큼 당시 분데스리가의 인상은 강렬했던 모양이다.

함부르크 구단 초청으로 1977년 5월부터 18개월간 유학한 최은택 한양대 코치는 "독일축구협회는 약 350만 명(1975년 통계)의 회원과 1만7100개의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약 200만 명이 규칙적으로 축구를 한다"(월간축구 1979년 2월호)며 폭넓은 축구 저변을 부러워했다.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 공부한 유기흥 국가대표선수도 "한국은 좀 더 과학적인 연구,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인이 부족하다"(월간축구 1979년 11∼12월호)며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이처럼 독일축구와의 인연은 상당히 오래됐다. 독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차범근이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분데스리가를 직접 보고 배웠다. 차범근의 성공 이후 한국 선수들의 관심이 분데스리가로 쏠린 가운데 박종원, 박상인, 김진국 등이 진출을 모색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김주성, 황선홍, 이동국, 심재원 등이 독일 무대를 밟았다.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차두리,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구자철, 지동원, 박주호, 손흥민 등이 활약했다.

최근 다시 분데스리가가 화제다. 권창훈이 디종(프랑스)을 떠나 프라이부르크에 입단했다. 프라이부르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던 정우영도 영입했다. 이로써 권창훈과 정우영을 비롯해 지동원(마인츠) 이청용(보훔) 이재성, 서영재(이상 홀슈타인 킬) 박이영(장크트 파울리) 등이 다음 시즌 분데스리가를 누빈다. 베테랑 구자철 또한 독일 무대 잔류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특정 리그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적 및 연봉 협상을 주도하는 에이전트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감이 잡힌다. 잉글랜드의 경우 워크 퍼밋(노동 허가)을 받기가 까다로운 게 걸림돌이다. 스페인은 구단 간 편차가 심한데다 같은 언어를 쓰는 남미 선수들의 공급이 워낙 많다보니 아시아권 선수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 외국인 선수 쿼터가 2명에 불과한 이탈리아도 비슷한 상황이다. 프랑스도 같은 언어를 쓰는 북아프리카 선수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 리그 수준은 높지만 한국 선수들이 적응하기에 상대적으로 편하다고 한다. 또 실력이 이미 검증됐다는 점도 강점이다. 특유의 성실성과 근성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 덕분에 한국 선수를 믿고 영입한다는 게 에이전트들의 설명이다. 신뢰를 쌓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한 에이전트들의 역할도 한몫했다. 또 독일은 자국선수보호를 위한 등록인원(12명)만 채우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쿼터 제한이 없다. 기술 및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선수들이 밀리긴 해도 경합할 정도는 되며, 언어적 측면에서도 영어가 많이 쓰이는 독일이 편하다고 한다.

권창훈의 에이전시 월스포츠의 류택형 이사는 "독일 무대는 우리 선수들이 유럽으로 가는 관문 같은 존재"라면서 "우리 선수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유럽 5대 리그 중 독일은 40여 년 간 이어진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이다. 또 손흥민(토트넘)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로 진출하는 데 발판이 된 곳도 독일 무대다. 차범근처럼, 손흥민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분데스리가다.

전문기자·체육학 박사 choihg2@donga.com

뉴캐슬 감독 교체…기성용 새 도전 시작된다

기성용(30·뉴캐슬 유나이티드)이 새로운 환경을 맞게 됐다. 뉴캐슬 지휘봉을 잡았던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59·스페인)은 최강희 감독(60)이 사임한 중국 슈퍼리그 다롄 이팡의 새 사령탑에 올랐다. 다롄은 2일(한국시간) 베니테즈 감독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중국으로 떠난 베니테즈 감독은 3일 뉴캐슬 팬들에게 직접 작별인사를 하며 "팀에 남고 싶었지만 구단이 생각하는 비전을 공유할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쉽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베니테즈 감독이 떠나면서 뉴캐슬 사령탑은 공석이 됐다. 프랑스의 축구 레전드 파트리크 비에라 현 OGC니스 감독(43)이 유력한 후보로 손꼽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비에라 감독은 프랑스 언론을 통해 "니스를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가능한 오래 머물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영국 언론에서는 몇몇 후보들을 거론하고 있지만 구단의 구체적인 행보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여름 뉴캐슬로 이적하며 2년 계약을 맺은 기성용은 계약 기간을 1년 남긴 상황에서 감독 교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됐다. 그는 베니테즈 감독과 함께한 2018∼2019시즌 초반 주전 경쟁에서 밀렸다. 또한 부상이 겹치면서 출전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8경기를 소화하며 팀이 강등권을 벗어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냈다.

기성용은 자신의 출전 여부를 떠나 베니테즈 감독의 전술 운용 등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감독과의 좋은 궁합을 드러낸 바 있다. 기성용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명장 베니테즈 감독이 뉴캐슬을 떠난 게 여러모로 아쉬울 수밖에 없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손흥민 한정판 시계 차고 손하트

손흥민(토트넘)이 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바이산 갤러리 카페에서 진행된 스위스 시계 브랜드 태그호이어의 '손흥민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기념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태그호이어의 '손흥민 리미티드 에디션'은 그의 등번호 '7'에 착안해 777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한국에서만 단독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손흥민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시계 디자인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강원FC 정조국, K리그1 18R MVP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강원FC의 베테랑 정조국을 '하나원큐 K리그1 2019' 18라운드 MVP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조국은 지난달 30 일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4골차 열세를 뒤집은 17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전에서도 결승골 포함, 2골을 터뜨렸던 정조국은 두 라운드 연속으로 역전 결승골 및 멀티골을 기록했다. 18라운드 베스트11에는 정조국과 함께 세징야(대구FC)가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미드필더 부문은 완델손(포항), 김보경(울산 현대), 한국영(강원), 알리바예프(FC서울), 수비수 부문에는 김진수(전북 현대), 연제운(성남FC), 김오규(강원), 김태환(울산), 골키퍼는 전종혁(성남)이 선정됐다.

미국, 여자월드컵 3회 연속 결승 진출

미국 여자축구대표팀은 3일(한국시간) 프랑스 리옹의 스타드 드 리옹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잉글랜드에 2-1로 승리를 거두고 3회 연속 결승에 올랐다. 3회 연속 결승 진출은 여자 월드컵 역사상 미국이 처음이다. 미국은 1-1로 팽팽하게 맞선 전반 31분 알렉스 모건이 헤딩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통산 5번째 결승에 나선 된 미국은 4번째 우승 트로피를 노린다.

베트남 콩푸엉, 벨기에 트라위던 임대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간판스타 응우옌 콩푸엉의 에이전트사인 DJ매니지먼트는 콩푸엉이 벨기에 프로축구 1부리그 신트 트라위던으로 임대 이적한다고 3일 밝혔다. 베트남 선수로는 최초의 유럽 무대 진출이다. 2015년 호앙아인 잘라이FC(베트남)에 입단한 콩푸엉은 2016년 미토 홀리호크(일본)로 임대 이적해 6경기에 출전했고, 올해는 K리그 인천(임대 이적)에서 8경기를 뛰었다. 그는 유럽 무대 도전을 위해 지난 6월 2일 인천과 임대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